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의 간담회 개최



인터뷰\_사람&issue

전남/AUD 건축사사무소 문성식 건축사



2014 광주비엔날레 개막

# 터전을 불태우라 BURNING DOWN THE HOUSE

2014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4  
 9.5-11.9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시론 02

건축사들의 영토 분쟁 \_ 박재홍

설계경기 03

삼례읍 주민센터 건축설계경기 \_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기획 04-05

2014 광주비엔날레, "66일 간의 현대미술 축제 대장정" 시작

학술 06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제1부 -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 \_ 안상욱

사람 & issue 07

"건강하고 재미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건축인생을 사는 문성식 건축사와의 만남

NEWS 08~10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의 간담회 진행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4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 시행

학술 -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제1부



580만평 운정새도시의 얼굴인 운정호수공원 모습

# 건축사들의 영토 분쟁



박재홍 건축사  
(주)홍 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이사  
hag6282@chol.com

급기야 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영업권을 주장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전북 군산에서 건축실무에 갓 입문했던 1977년에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전 쟁터를 방불케 하는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선배 건축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꿈을 쫓아 노력하다보니 건축사가 되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환경과 조건은 예전 같지 않다. 건축경기의 침체로 수주량도 줄어들었고, 건축사의 과다배출로 경쟁도 치열해졌다. 여기에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적인 성향까지 더해져 부실과 덤핑수주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영업권을 주장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축사들끼리 영토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흡사 동물들이 먹잇감 확보를 위해 영역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말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들의 영역다툼은 힘으로 결정된다. 결국 힘 센 동물이 더 넓은 사냥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는 얘기가. 그렇다면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힘은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수요자의 욕구와 만족도,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 작품성과 완성도, 대인관계와 신뢰도, 가격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힘의 가치와 세기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통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건축사들끼리의 영역 다툼은 힘의 논리와도 맞지 않고, 시장경제의 논리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역 다툼에 부적절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거나 불공정한 경쟁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타 지역의 건축사에게는 참가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입찰제도와 계약방식도 하나의 사례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영토분쟁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정당한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보호 등의 명분이라도 있기에 봐 줄만 하다. 더 큰 문제는 점점 더 방법이 치졸해 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에 건축사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행정관청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타 지역 건축사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용승인 업무대행 등을 악용하여 텃새를 부리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행태들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힘든 여건을 만회하기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시장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지 않던가? 지역 이기주의의 장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스스로의 활동범위 또한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버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던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도 없을뿐더러

결국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또한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던가? 그렇게 반문하며, 이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먼저 발상의 전환부터 해보자. 위기의 요인이 있다면 반대로 기회의 요인도 반드시 공존한다. 즉, 우리의 시장을 내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 지역의 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역의 시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타 지역 건축사들과 경쟁하며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파악하여 약점은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강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와 취향은 물론이고, 지역의 역사성을 비롯한 인문환경, 물리적 자원과 자연환경 등을 어렵지 않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인적 네트워크와 가격 경쟁력 또한 당연히 타 지역 건축사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최대의 약점은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렇게 발생한 틈새를 통해 타 지역 건축사들이 유입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역의 시장을 지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것이다. 건축사들의 윤리성과 창의성 및 기술능력을 믿는다면 해당 지역의 고객들은 결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국내의 형편이나 건축계의 사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만을 근거로 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짓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장본인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역을 볼모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며 대응해 나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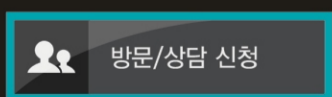
우리 건축사들은 적어도 그 물음에 떳떳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영토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 및 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하여 슬기로운 해법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며,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midas eGen 과 midas Drawing이 만들고 있는  
설계 업무의 변화를 웹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한 건축설계 통합 사이트  
**www.midasarchi.com**

제품 도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신청해주세요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갑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청은 주민들이 필요한 복합 문화 공간의 구성 및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축 설계 공모를 공고함.

심사위원 : 주대관, 김재열, 이재문, 임용민, 문창호, 이용수, 강석표, 김만희, 김은숙

발주처 : 완주군청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우수작 : (주)윙그룹 건축사사무소  
 강문수 건축사 (미게제)  
 가작 : 성우 건축사사무소  
 이규문 건축사 (미게제)  
 ※ 우수작과 가작은 제출자의 비협조로 미게제

# 삼례읍 주민센터 건축설계경기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91-3번지 일원  
 대지면적 : 9,766.00㎡  
 건축면적 : 1,927.86㎡  
 연 면 적 : 2,486.47㎡  
 건 폐 율 : 19.74%

용 적 륜 : 24.65%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마 감 : 노출콘크리트, 고밀도목재압축판넬  
 주차대수 : 지상20대 (장애인 2대)

**당선작**  
**이길환 건축사**  
 (주)길 건축사사무소



## AUTODESK 제품 프로모션 안내

2008이하 단종버전의 마지막 할인 업그레이드 기회!

| 기 간 | 2014년 7월 18일까지  
 | 대 상 | 오토데스크 전 제품 구버전 보유고객, 신규구매 고객 (\* BC카드 3개월 무이자 결제 가능)

**AutoCAD Architecture 2015**  
 건축전문가를 위한 지능화된 CAD

- AutoCAD 대비 작업시간 최대32%단축
- BIM 기본 제출 포맷인 IFC 포맷 내보내기 지원

**Building Design Suite 2015**  
 CAD&BIM을 위한 최상의 S/W

- AutoCAD/ AutoCAD Architecture / Navisworks / AutoCAD Revit/ 3ds Max Design등 10개이상 제품 포함

**특별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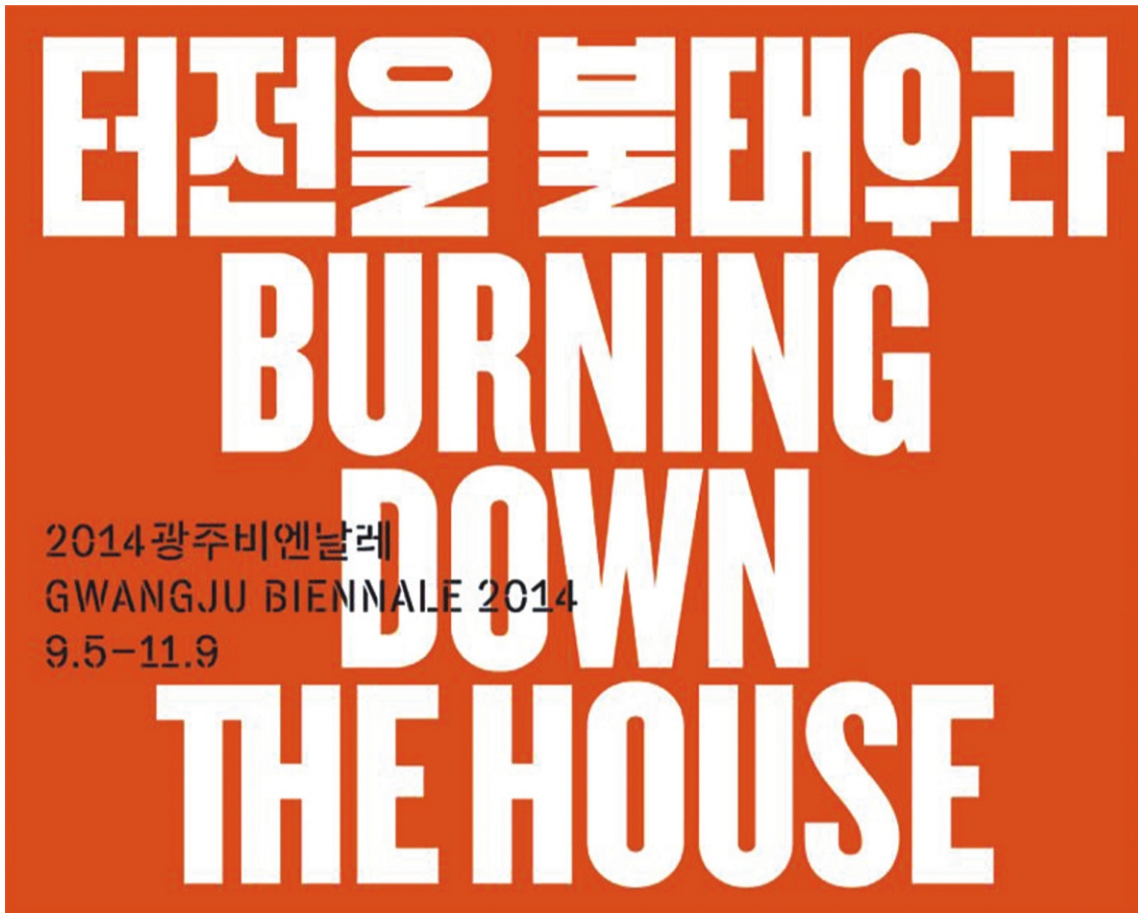
최대 30%

아이패드mini 증정 (3copy이상 구매 시)



# 2014 광주비엔날레, “66일 간의 현대미술 축제 대장정” 시작

- 지난 9월 3일 열린 프레스오픈과 9월 4일 전야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9월 5일부터 66일 간의 공식일정 들어가...
- ‘터전을 불태우라’ 라는 주제로 103작가 참여 413점 선배...시민 참여 프로그램 · 국제 포럼 등 다채



Raouda Choucair)’(2013)전은 남미와 중동이라는 문화 변방 지역의 문화를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테이트 모던의 유니레버 시리즈에 작가 티노 세갈(Tino Sehgal)을 초빙하여 현대미술의 담론을 경제학으로 확장시키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시켰다.

이외에 제시카 모건이 관여한 전시들은 보스턴 현대미술 연구소를 비롯해 하버드 대학 포그 아트 미술관, 예일 대학 영국미술 예일 센터 등에서 현대미술을 연구하면서 비판적인 담론을 형성해왔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제시카 모건 총감독은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제목이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나 움직임의 실천적 역동성을 추구하면서 현상상태를 ‘불태우는’ 급진적인 정신을 아우른다”며 “연극적인 요소,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가 펼쳐내는 마치 거대한 현대미술의 집에 방문한 것처럼 보고 느끼고 진지하게 사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베일 벗은 “터전을 불태우라” ... 직설적인 주제 구현



2014광주비엔날레는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38개국 103작가(111명)가 참여해 111작품 413점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주제를 구현하는 대형 신작 39점이 대거 등장하면서 마치 불타는 듯한 거대한 집을 연상케하는 독창적인 큐레토리얼을 구사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 광장에 들어서면 스틸링 루비의 신작 ‘스토브’에서는 실제로 장작이 타면서 연기를 뿜어낸다. 전시관 벽면에는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식민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문어가 전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타이틀은 제레미 델러의 ‘무제’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가로 29.2m x 세로 15.8m 규모 대형 배너 설치 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5개 전시실은 화재가 발생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벽지 작품이 설치됐는데 엘 울티모 그리토의 신작 ‘미장센’으로 6606㎡(2000평) 규모 대형작이다. 3전시실에 들어선 우르스 피셔 가상의 집인 ‘38 E. 1st ST’는 작가의 429㎡(130평) 규모 뉴욕 아파트를 실사로 재창조했다. 집 내부에서는 팝 아티스트 조지 콘도, 스투어트 우, 프렘 사히브, 카롤 크리스티안 필, 토모코 요네다 등 7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부 곳곳에는 실제 집 안에 들어온 듯한 효과를 연출하는 작품들과 불에 탄 잔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주제를 더욱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1전시실에 들어서면 잭 골드스타인의 ‘불타는 창문’이 있는데 어두운 방 안의 한 쪽 벽면에 창문을 끼워놓고 그 안에서 붉은색 빛이 깜빡이고 있어 마치 집이 불타는 듯한 광경을 보여준다. 1전시실에서 나갈 때는 구정아 작가의 벽이 흔들리는 듯한 작품인 ‘그것의 영혼’과 만나는데 화재 발생의 위급한 상황을 연출한다.

2014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14  
9.5-11.9

### ■ 개막전 가진 9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프레스오픈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의 대통령 희화화 영향인 듯 싶었다.

작품은 철수됐지만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올해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본의 아니게 빨리 불탔다”며 “광주비엔날레는 20년간 현대미술을 전시한 데서 나아가 사회와 정치, 문화, 인류학적 담론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토론을 생산해 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2014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제시카 모건”



영국 국적의 제시카 모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미술사로 학사학위를, 런던 커틀드(Coutauld)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여 년간 시카고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등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험성 있는 전시를 기획해왔다.

제시카 모건이 2002년부터 테이트 모던에서 선보인 다수의 전시들은 동서양의 조화, 다양성, 융화 등의 메시지를 세계 미술계에 던지고 있다. 멕시코의 설치 미술가인 ‘가브리엘 오로즈코(Gabriel Orozco)’(2011) 전과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레바논 출신의 93세 예술가 ‘살루아 라우다 슈케어(Saloua



3전시실에는 브라질 출신 작가 레나타 루카스의 작품인 아파트 창문을 재현한 ‘불편한 이방인이 될 때 까지’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게 전시관 벽면을 뚫으면서 환상과 실재의 경계를 허문다.

4전시실에는 벨기에 출신 작가로 테이트모던 등에서 전시를 가졌던 카르슈텐 힐러의 신작 ‘일곱개의 미닫이 문’도 건물 안을 걸어가는 듯한 착시 효과를 준다. 아르헨티나 작가 에두아르도 바수알도도 본인의 집이 화재로 소멸됐던 경험에 근거해 불에 탄 나무로 만든 집 형태의 작품 ‘섬’을 선보인다. 1전시실 코넬리아 파커의 ‘어둠의 심장’도 불에 탄 나무의 잔해로 만든 설치작이다.

●작가 90%가 비엔날레 첫 출품...신진 작가 발굴 의장

2014광주비엔날레에는 90% 이상의 작가들이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신진 작가로 구성되면서 실험적이면서 참신한 현대미술의 장이자 신에 발굴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2014광주비엔날레 출품 한국작가는 22명(협업 2팀 제외)으로 대부분 작가들이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면서 한국 미술의 가능성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완, 최수양, 옥인 콜렉티브, 정금형 등 국내에서 가장 ‘핫’한 신진 작가들과 2014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 작가로 선정된 광주 출신 최운형, 박세희 씨

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불, 윤석남, 성능경 씨 등 중견 작가들도 비엔날레 본전시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2014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운형, 따라서 2014광주비엔날레는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미술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다.

이밖에 현대 미술계 스타작가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광주비엔날레의 미학적 담론 생산에 힘을 보탤다. 2004년 영국 터너상을 수상하고 2013 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 대표작가였던 제레미 델러, 현대미술계의 센세이션이라 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스위스의 우르스 피셔, 독일 출신 로즈마리 트로켈, 영국의 설치미술가 코넬리아 파커,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불평등과 규범을 다양한 매체로 탐구해온 로만 온닥, 피에르 위그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아시아 현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시아권 유명 작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중국 대표작가 류 사오둥, 경 지안이, 일본 미술계의 스타 테츠야 이시다, 필리핀의 로델 타파야 등은 아시아의 역사와 변화 발전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류 사오둥은 7월 한 달 간 광주에 머물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회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 국제 포럼 등 다채

광주비엔날레는 전위적인 현대미술을 시민들과 함

께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광주 전역 곳곳을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꾸민다.

광주비엔날레가 매 행사마다 추진하면서 시민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길러온 시민

참여 프로그램 ‘나도 비엔날레 작가’는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고 진전시켜온 모든 활동과 기록물, 작품들을 선보이는 장이다. 용봉제·양림동·광주극장 등 광주 시내 20여 곳이 ‘소박한 전시장’이 된다.

9월 13일부터 폐막일인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공휴일 오후 3시 부터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관 광장 야외무대에서 주말 콘서트가 44회 펼쳐진다.

클래식, 재즈, 락, 국악, 포크, 벨리댄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온 가족에게 즐길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수공예품, 목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마켓도 매주 토요일, 공휴일 오후 1시 부터 6시 까지 광주비엔날레관 중정에서 펼쳐지며, ‘아트체험 : 작가와 함께 하는 미술 공작소’도 올해 처음 시도돼 관람객들이 직접 작가들과 작품을 만들어보는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인문학적 담론 생산과 함께 현대미술의 흐름을 만나는 고품격 학술행사도 잇따라 개최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 더욱 의미 있고 지속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품 전시 맛보기...



1전시실 / RH\_WakingUp\_View2\_RAW



2전시실 / noise-filmscan1



3전시실 / AC\_BELL\_9



4전시실 / Motta\_NM\_PhotoByNahoKubota



5전시실 / FITZ4



기타 / Bengolea-Chaignaud Sylphides credit Alain Monot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_ 제1부



안 상 옥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aswnby@naver.com

- 제1부 -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 (2014년 9월 게재)
- 제2부 - 조경과 건축 분야 (2014년 10월 게재 예정)
- 제3부 - 조경과 토목 분야 (2014년 11월 게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상옥 단장은 도시계획·조경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LH에서 운정새도시의 개발사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자체의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의 협업과 상생

### 도시의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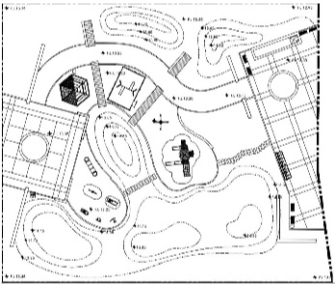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서서 국민 5천만명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시와 읍)에 살고 있으며, 도시의 열개를 짜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운정새도시의 공원녹지체계도  
(동그라미가 가람공원)



개발사업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  
(동그라미가 가람공원)



개발사업 실시계획도  
(가람공원)



가람공원의 조경실시계획도면  
(배식도)



가람어린이공원의 전경



580만평 운정새도시의 얼굴인 운정호수공원 모습

도시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도시민들은 도시안의 집에서 자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하고,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영화도 보고, 공원에서 쉬는 등 다양하게 활동한다. 특히 광역도시권에서는 서로 다른 도시에서 자고 일하고 또는 놀고 쉴 수도 있어서 도시는 늘 복잡한 요구와 민원 그리고 갈등이 상존하는 공간일 수 밖에 없다.

인류가 발명한 최대 인기상품이라는 이러한 도시는 엄청난 크기의 면적, 수많은 인구, 건축물 등이 집적된 인공의 공간으로 도시계획분야 뿐만 아니라 건축, 조경, 토목, 정보통신,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협업을 통해 계획하고 개발하고 있다.

### 도시의 개발과 공원녹지

도시계획의 법률적 뼈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줄기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위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사업(주택법), 공원조성사업(도시공원녹지법) 등 여러 개발사업 과정에서 또한 구체화 되고 있다.

도시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제2조) 가운데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도시기본계획(제19조)에서는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공원과 녹지·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제25조)에서는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을, 용도 지역·지구·구역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제38조)과 도시자연공원구역(제38조의2)을, 지구단위계획(제52조, 이상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배치와 규모,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을 조경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립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의 '기반시설'인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제6조),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보(제14조), 도시공원의 설치(제4장), 도시자연공원구역(제5장), 녹지의 설치(제6장) 조항을 기준으로 택지개발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계획되고 설계, 시공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 조경과 도시계획의 협업

100여개 이상의 주택·상업·학교·업무용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개발계획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부문계획인 공원녹지계획에서는 공원녹지체계의 구축과 생활권별 배분 그리고 공원녹지율의 확충이 중요하다. 대규모의 중심공원도 필요하지만, 각 주택단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실시계획단계에서의 공원녹지계획의 경우 개별 공원 안의 동선이나 공간 배치도 중요하지만 도시나 지구차원의 동선체계에 맞도록 개별 공원의 동선계획(차량, 자전거, 보행)을 체계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공원녹지 인접 필지가 상업용지, 학교, 주택단지, 도로일 경우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용도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공간과

녹지공간을 배분하고 접근성이나 공간분리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공원녹지계획이 도시적 맥락에 맞게 수립되면 개별 공원의 실시계획단계에서 조경가는 상위 계획의 흐름을 받아들여 도입 공간과 시설물, 조경수목을 설계하면 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새도시 건설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사례를 들어보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령 400년, 높이 12m 너비 24m의 느티나무 보호수를 제 자리에 살리기 위해 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대지조성공사 실시계획과정에서 약 6000여㎡의 이 공원용지가 인근 공동주택용지의 조성고보다 16m정도 높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대로는 주민들이 공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수와 해당 공원을 인근의 평지로 옮기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으나, 지자체의 보호수 존치 요구에 부딪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이 변경(공원의 위치 이동)되지 않으면 수십억원짜리 땅 위에 주민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피라미드꼴 비탈위에 보호수 한 그루 서 있는 깎두기 공원이 만들어질 텐데, 조경가는 어려움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게 상위의 개발계획을 바꾸도록 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도시공원을 예로 들었지만 조경가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까닭을 보여주고 있다.

### 조경가의 자세

이렇게 조경전문가는 여러 단계의 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지금도 상생하고 있다. 도시전문가에 비해 조경전문가가 보다 전문적인 영역은 무엇일까? 대체로 조경전문가는 사람의 행태에 관심이 많고, 나무와 땅 등 생명이 살아있는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이 깊고, 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학습시간도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도시계획과 달리 공원녹지의 공간·시설을 설계·시공·운영관리하면서 소비자인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계획과 개발 과정에서 조경가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전문 역량을 발휘해 주어야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보다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다.

또, 조경전문가는 도시계획분야와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조경분야와 도시계획분야 사이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절차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이다. 조경가는 도시전문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공원녹지체계 구축과 생활권별 배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고,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공원녹지체계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상위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다음의 실시계획단계에서 조경설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을 선행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조경가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와 더욱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조경실시계획단계 보다는 상위, 선행 단계인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단계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 “건강하고 재미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건축인생을 사는 문성식 건축사와의 만남

문성식 건축사는 전남 장흥에 터를 잡은 지 만 6년이 되어간다고 한다. 전남 장흥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알고 보면 광주 건축계에 영향을 많이 준 건축사이기도 하다. 건축사 취득 후 젊은 나이에 광주건축사회 임원 활동을 하며 건축문화 발전과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2003년에는 큰 뜻을 품고 광주건축사회장 선거에 까지 출마하기도 했었다. 그러다 2003년 10월 급성위암판정을 받고 항암치료에 매진한 후 점차 회복기를 거쳐 현재 전남 장흥에 내려와서까지...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장흥 AUD 건축사사무소에서 문성식 건축사와 편집위원들과 나눈 대화이다.

## 전남 장흥에서는 생활

이곳 장흥에 온지도 벌써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 10월에 급성위암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6개월간 받은 뒤로, 광주 에이디그룹 건축사사무실 일을 정리하고 폐업하려다 다시 몸이 조금씩 나아져 마음 편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 곳으로 왔지만 공기도 좋고 사람들이 정도 많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 몸 또한 좋아 지는 듯 싶습니다. 이 곳에 와서야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장흥 군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장흥을 와서 보니 직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 점이 있어 광주에 작업소를 하나두고 저만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나무와 꽃 등 원예를 좋아해 순천농업전문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사는데 어려운 시절이라 원하는 곳보다 현실적인 곳을 선택해야 했고 아버지께 조대공전에 이리러리한 과가 있으니 어디로 선택해야하는지 여쭙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축과에 지원을 하라고 하였고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로 74년도에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 일을 했고 군대를 다녀와 다시 건축 일을 하게 된 해가 79년도입니다. 이 해에 광주 금남로에 있는 강찬수 건축사(광림 건축)님을 만나 실무 경력을 쌓으며 87년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듬해 88년 3월 광주에 문성식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 한울회 활동에 대해서도...

그 당시 광주지역 젊은 건축사였던 강남구, 신정철, 강현구, 최경양, 강성철 건축사 등 14명과 한울회를 구성하여 씩씩하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 구성원들이 한해는 국내건축답사를 하고 한해는 국외건축답사를 하며 활발히 활동해 나갔습니다. 활발한 활동 덕에 대만건축사회와 싱가포르건축사회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등 그 당시 젊은 건축사들과 함께 건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자 구성했습니다. 한울회의 이름으로 디자인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건축 관련 인재육성에도 이바지 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쉽지만 그 당시 모임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 활동했던 5~6명의 건축사들과 모여 한울회의 희망찬 부활을 꾀하고 있고, 앞으로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 건축사로서 확립하신 철학에 대해

건축은 시대의 흐름과 비례합니다. 그 시대의 경제력, 그 시대의 정치력, 그 시대의 종교관까지... 그 때마다 건축문화가 달라 집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선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건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등 연출을 하면서 건축주가 나

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에게 위임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물로 건축주가 만족했을 때, 그 때가 건축사로서 활동하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을 때는 일부 몇몇의 건축사들이 너무 돈에만 급급해 전문자격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부끄럽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주로부터 신뢰를 못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시 상호간의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축사가 건축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요 근래에 건축 업무처리를 하면서 느끼는 경우인데 그 경우가 많아져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만, 예전 금성 건축의 임재식 건축사님과 백제 건축의 최수일 건축사님, 우주 건축의 박종성 건축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분들 모두 성품을 비롯해 건축적 작품 수준을 보면 지금에 봐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건축사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셨고 좋은 작품들을 남기신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 적이 있습니다. 가구부터 시작해서 커튼, 가전, 벽에 거는 그림까지 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던 부부 건축주셨는데, 건축사들이 업을 해오면서 이러한 건축주를 만나기는 정말 행운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금전적인 이득은 크게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직접 일일이 고르며 건축사로서 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아직도 그 부부 건축주 분들과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은 협회 발전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일부 후배건축사들이 선배건축사님들이 올려놓으신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선배님들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후배님들을 그런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 향후 계획 및 포부에 대해...

저는 지금 내년 정도에 장흥에 아뜨리에를 지을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장흥으로 가니까 1년만 있다가 광주로 다시 올 것이라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벌써 6년 가까이 됩니다. 이곳 장흥은 정도 있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건축 인생을 즐겁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취재 : 박신남, 박종현, 박주현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남장흥 / AUD 건축사사무소에서 문성식 건축사



▲ 편집위원들과 인터뷰 중인 문성식 건축사



▲ 장흥군 다문화교육센터 신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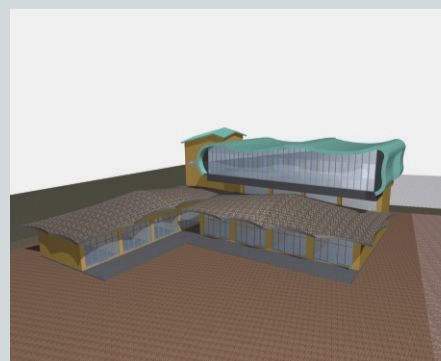
## 문성식 건축사가 설계한 대표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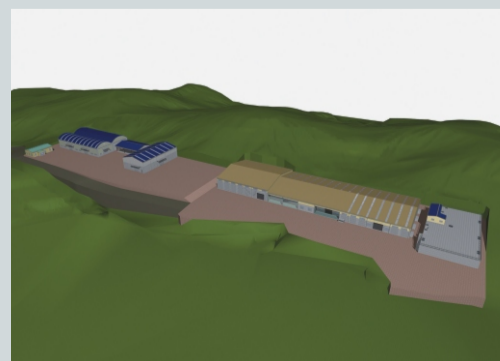
▲ 장동농촌 생활정비사업 복지회관 신축공사



▲ 장흥군 대덕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정남진 장흥도요시장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



▲ 함평농협농축지원회시설 신축공사



### 농어촌 집고치기 봉사활동 활동보고



전북대학교와 비전대학교는 농어촌 집고치기 봉사활동으로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위치한 후리마을에 다녀왔다.

학부생 40여 명과 대학원생,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마을회관 정비부터 총 6가구의 내부 및 외부 수리 등 활동구역을 나눈 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긴 여정을 마쳤다. 배정된 가구의 주거상태는 매우 열악했다. 지붕 노후로 인한 차수 및 단열이 불가능한 가구, 재래식 화장실의 상태가 매우 낙후된 가구, 창문의 부재로 단열 및 방풍이 불가능한 가구 등 여러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더불어 6가구 중 4가구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어 주거 상태의 보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었다.

우리는 6개조로 나뉘어 지붕 철거 및 보수, 도배 및 장판교체, 내외벽 도색, 화장실 설치공사 등의 작업을 필요한 곳에서 봉사했다. 지붕 철거 및 보수 작업은 전문가를 도와 짐을 옮기는 작업을 도왔고 도배 및 장판교체, 내외벽 도색작업은 한쪽 방으로 가구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마지막 도배를 마치고 다시 가구를 옮기는 과정까지 모두 참여했다. 도착한 오후부터 떠나는 전날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가며 땀 흘리면서 이룬 결과물들은 어르신들에게 환한 미소로 돌아갔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봉사하러 간 곳에서 오히려 큰 도움을 받았다. 50여명이 넘는 인원이라 마을회관에서 모두가 자는 것에 한계가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작업이 완료된 가구의 어르신께서 흔쾌히 손자방을 빌려주셨다. 어르신은 이외에도 김치나 가지 등 부식재료를 주시며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우리를 활동실적이라는 명목 하에 오는 단순한 대학생 봉사활동자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후리마을 어르신들은 손주 대하듯 따뜻한 정으로 우릴 대해 주셨다. 되려 우리가 너무 감사했다.

무거운 장판을 여럿이서 어깨에 메고 옮기기도 했고, 긴 도배지를 세명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반듯하게 작업하기도 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할 일들을 여럿이 힘을 모아 해결 했던 것이다. 우리는 각자 한방울이었지만 모이고 모여 바다를 만들었다. 그런 소중한 경험에 잊지 못할 추억과 보람이 덩어리로 더해졌다.

### 광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 전북대와 전남대를 시작으로 호남지역 대학 9월과 10월 중 졸업작품전 진행

호남지역 대학교 건축 전공 졸업 예정 학생들 대부분이 개강 후 졸업작품전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졸업작품전을 개최한 대학은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로 전북대는 지난 6월에 졸업작품전을 마쳤으며 전남대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호남지역 4~5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작품전 일정이다.

지역	대학, 학과명	일자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09. 04 (목) ~ 09. 06 (토)	영명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09. 16 (화) ~ 09. 19 (금)	호심도서관 5층 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0. 07 (화) ~ 10. 08 (수)	공대2호관 9/11 홀
	조선이공대 건축과	10. 08 (수) ~ 10. 12 (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전남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10. 06 (월) ~ 10. 08 (수)	교내 예정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09. 30 (화) ~ 10. 02 (목)	플라자60 대강당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0. 16 (목) ~ 10. 18 (토)	70주년 기념관 1층 전시실
전북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06. 17 (화) ~ 06. 20 (금)	박물관 1층 전시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09. 18 (목) ~ 09. 20 (토)	아카데미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0. 06 (월) ~ 10. 08 (수)	송산기념관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 미정, 동강대 12월 예정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광주건축공모전 진행

— 광주 우체국과 우체국이 위치한 도시블럭의 장소성 부활을 주제로 오는 9월 26일까지 등록접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는 2014 광주건축공모전 등록접수를 오는 9월 26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120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광주 우체국과 우체국이 위치한 도시블럭 장소성의 부활과 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은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서 상세요강 및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4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521-0025~6)으로 문의 바란다.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등록접수 오는 9월 12일까지 마치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작품 접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2014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 12일까지 등록 마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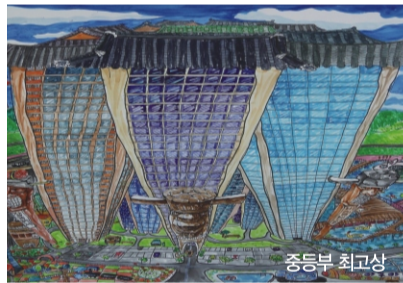
총상금 120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푸른길 공원과 함께하는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도시재생디자인(주거+문화)'이란 주제로, 공모분야는 '현지개발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과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연계사업', '구도심 상가와 아시아 문화전당과의 연계활성화 사업'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등록 방법은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서 상세요강 및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4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521-0025~6)으로 문의 바란다.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1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결과 발표

— 각 부문 최고상 금구중정은서, 계림초 김도경, 고실초 손민성 / 시상은 문화재단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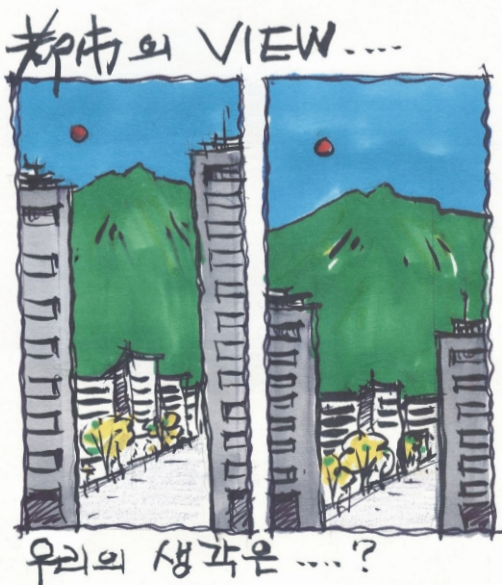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19일 제11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유치부 부문부터 중등부 부문까지 총 8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명실상부 광주지역 최고의 그림그리기대회라는 면모를 보였다.

미술협회 회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약 150여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광주시교육감이 수여되는 최고상에 금구중학교 정은서(1학년), 광주계림초등학교 김도경(6학년), 고실초등학교 손민성(2학년) 학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자세한 시상 내용과 전시 및 시상식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축사 만평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천일석재 CHONIL STONE



음수대 / 음수전 / 볼라드 / 의자석 / 간판석

#### 천일석재 음수대 7대 특징점

1. 통돌을 사용하여 설치가 간편하다.
2. 내부가 설치되어 있어 연결만 하면 된다.
3. 수도꼭지 고정시 교체하는데 편리하다.
4.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 설치후 사용 중 다른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6. 천재지변이나 임의파손이 아닌경우 반 영구적이다.
7. 국내석으로만 제작한다.

천일석재대표 강현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77 (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0-13)  
TEL : 063)862-0310, 0814 (야간) 841-5232 FAX : 063)862-0309  
E-mail : chonilstone@hanmail.net / www.chonil0310.com



##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의 간담회 진행

- 지난 8월 18일 광주 금수장에서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25명 광주지역 회원 참석



광주건축사회(회장 안길전)는 지난 8월 18일 광주 금수장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건축사회 자문위원과 이사, 구협의회장 등 25명이 참석하여 대한건축사협회와 더불어 지역건축사회 상호 발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회장은 광주건축사회의 지역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본협회 또한 전체 회원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건축사 공제조합 현황 및 업무설명', '감리제도 개선 추진사항', '유지관리 점검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상황' 등을 알렸다.

특히 감리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면적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가 남았다"며, "합의 후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수 회장은 약 2개월 전부터 전국 지역건축사회를 돌며 중앙건축사회와 지역건축사회와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 광주건축사회,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

- 오는 10월 18일 광주대학교 진월관에서 진행, 회원들에게 참가접수 독려

광주건축사회는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4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로 오는 10월 18일 광주대학교 진월관에서 진행되며 오는 9월 12일까지 참가자접수를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57526번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2-528-0026)로 보내면 된다.

## 광주건축사회,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신청 접수

- 오는 10월 23일과 24일 경상북도 구미코에서 진행, 참가접수 9월 12일까지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오는 10월 23일과 24일 경상북도 구미코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주건축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코스에 포스코와 경주 양동마을 탐방 등 건축물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시간으로 인정될 알려졌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57590번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2-528-0026)로 보내면 된다.

### ■광주건축사회 주요 일정 안내

광주건축사회는 10월, 11월 주요 행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 바란다고 밝혔다

- ▶ 2014 한마음체육대회 - 10월 18일 / 광주대학교 진월관(체육관)
-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10월 23일~24일 / 경북 구미
- ▶ 한국건축산업대전2014 - 10월 31일 / 서울 코엑스
- ▶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 11월 5일~9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014 건축사 자격시험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

- 오는 9월 20일 전국 일제 실시, 호남권은 광주전자공고에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올해 '건축사자격시험'을 20일 전국 5개 권역에서 치른다고 밝혔다. 시험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로, 각 과목에 배정된 시간은 3시간씩이다.

시험장소는 서울의 경우 10개 학교이며, 지방의 경우 권역별로 부산공고, 대구서부공고, 광주전자공고, 대전문정중 등 4곳에서 열린다. 합격예정자 발표일은 11월 7일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회원정보 수정 요청 안내

- 오는 10월 말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메일서비스와 휴대전화 문자, 우편을 발송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정확하지 않은 회원정보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정 요청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수정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57476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 세움터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 확산 및 시스템 고도화 관련 설문조사

- 오는 9월 19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차세대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대상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협회이며, 기간은 오는 9월 19일 까지 이다. 설문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58193번에서 설문지를 다운 받아 작성후 이메일(everway@ardent.co.kr)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던트컨설팅(담당자 : 김도성 수석 070-7866-0928 / 010-3360-0753)로 문의하기 바란다.

## 광주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171개 단지 특별안전점검

- 10월 말까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후 아파트 등



광주광역시는 최근 중흥동 평화맨션 지하층 기동파손사고와 관련,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후 아파트 등 171개 단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안전점검은 30년 이상 된 147개 단지과 자치구 선정 24개 단지를 대상(동구 30, 서구 48, 남구 35, 북구 47,

광산구 11개 단지)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구청별 대상이 달라 자치구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10월말까지 구조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기 등 안전진단과 시험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동-옹벽 등의 균열, 침하, 철근 노출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와 노후화로 인한 붕괴 또는 파손 징후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주체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단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안전진단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 하나오앤씨

대표 문 지 훈

최적의 설계 환경에 맞는  
복사기 / 프린터 / 컴퓨터 / 소모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귀하의 사무실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품질은 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 신도리코 / 케논 / 제록스 / HP

판매   임대	복합기	프린터	컴퓨터	시공	네트워크	프로젝터	서버
프로그램	AutoCAD	CADPower	Revit	Adobe	3D-Max	Sketchup	각종 프로그램
전산소모품	토너	복사용지	유지관리	A/S	수리	설치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로 86번길 7-7  
**C.P 010-6694-2233**  
TEL 062-374-6525 FAX 062-374-6526  
E-MAIL - hanaoc@hanmail.net



전라북도건축사회, 『2014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 시행

— 오는 9월 23일 전주신일교회 ECM센터에서, 가급적 1개 강좌만 신청 유도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김남중)는 2014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 (1) 교육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
- (2) 교육 장소 : 전주신일교회 ECM센터 4층(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10-7)
- (3) 수강신청기간 : 2014년 9월 05일(금)~9월 22일(월)
- (4) 교육 과목

교육 개설 과목	모집인원	시간일정	교육비	강사
미국 LEED와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120명	10:00~12:00 (2시간)	20,000	김준영 교수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고령자 주거 및 요양시설의 환경디자인	120명	13:30~15:30 (2시간)	20,000	오은진 교수 (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부)
건축과 마케팅(감리)	120명	16:00~18:00 (2시간)	20,000	조종기 건축사 (서울시건축사회 회장)

\*기타사항 : 다수의 회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가급적 1개 강좌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광주건축사회 동정

- \* 퇴회**
  - 김성봉 건축사 / 동인 건축사사무소
  - 심상재 건축사 / (주) 중원 건축사사무소
  - 정현아 건축사 / (주)휴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변경(소재지)**
  - 차이준 건축사 / (주)티아이디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2 4층(금호동)
  - 이남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인
  - 광주 북구 연양로 105번길 20-6, 3층(양산동)
  - 김영전 건축사 / 아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서문대로 793 3층(주월동)

전남건축사회 동정

- \* 변경**
  - 이종호 건축사 / 성진강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981
  - 김병욱 건축사 / 테마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45
  - 이형호 건축사 / (주)삼정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나주로 160, (4층)
  - 강정성 건축사 / 이지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60번길, 21

광주·전남·전북 9·10월 지역축제안내

- ▶ 04. 04 (금) ~ 11. 11 (화)까지 제9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http://bookmarathon.gen.go.kr/>) 홈페이지 접속
- ▶ 09. 05 (금) ~ 11. 09 (일)까지 2014광주비엔날레 - 광주비엔날레관일원
- ▶ 09. 13 (토) ~ 09. 14 (일)까지 생명사랑 발길걷기 -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 ▶ 09. 14 (일) 금성산 숲길마라톤대회 - 전남 나주시, 금남동 금성관
- ▶ 09. 15 (월)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 광주 서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 ▶ 09. 15 (월) ~ 09. 17 (수)까지 국제기후환경산업전 - 광주 서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 10. 01 (수) ~ 10. 05 (일)까지 김제 지평선 축제 - 전북 김제시, 일원 (벽골제 중심)
- ▶ 10. 02 (목) ~ 10. 05 (일)까지 곡성심청효문화축제 - 전남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 ▶ 10. 02 (목) ~ 10. 05 (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 전북 군산군대역사박물관 주변
- ▶ 10. 04 (토) ~ 10. 08 (수)까지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광주 북구, 중외공원 일원

\*건축허가관련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74호, 2014.08.27.~10.0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설계 업무 실적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편의 도모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에 필요한 제출서류 생략(규칙 제11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578호, 2014.8.27 공포, 공포후 9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46조제5항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1. 개정이유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추가하고,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화(防火)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안 제46조제5항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및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를 추가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나.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제7호)
- 1) 종전에는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창고에 대해서만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형 창고가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창고화재 발생 건수, 재산피해액, 소형 창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600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창고로 확대하여 창고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윤덕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8.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위반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로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상한기준을 한도로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로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제1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4,000,000원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 표 | 지 | 설 | 명

### 터전을 불태우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9월 5일 개막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66일간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가 앞으로의 20년 그리고 100년의 비엔날레를 내다보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김 희 금  
양림동 파우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30대를 마감하는 2009년 12월말  
20대, 30대 시절동안 동고동락 했던 설계사무소를 퇴사했다. 늘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되는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그리고 늘 꿈으로 간직해온 혼자하는 작은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다.  
비록 작은 카페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해서인지 애착이 가는 카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몸매 밴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의 삶의 변화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 심지어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까운 지인들의 경조사는 물론, 취미 생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때마다 밀려오는 사소한 좌절감은 예전의 직장생활에 대한 향수병까지 앓게 했다.  
그토록 직장생활 할 때는 매순간 때려 치고 싶더니, 막상 때려 치고나니 직장생활이 그리운 걸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애증관계가 아닌가 싶다. 그토록 지겨워하는 지금의 자영업자의 삶도 접고 나면 그리워할게 뻔하다.  
단언컨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따윈 없는 게 아닌가? 다들 후회하지 않은 척을 하지는 않는가? 싶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환상과 지금 내가 선택한 인생에 대한 후회는 늘 공존하며 살아 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직장인 시절을 회상해 보면 90%의 즐거움과 10%의 무료함이 분명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유독 10%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 무료함이 100%이상으로 느껴졌던것 같다. 지금 자영업자의 삶도 즐거움의 무게가 더 클수도 있을텐데 아주 미미한 무료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무료함이 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되돌아 본다.  
문득 어른신들의 말씀이 떠오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은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반면에 늘 내 떡에 만족한다면 남의 떡의 좋은점 조차도 본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떡이 커 보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내 떡도 남들에게 커 보이게 내실을 다지고, 남의 떡도 존중하며 배울 건 배우며 살아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의 시

태 완 섭 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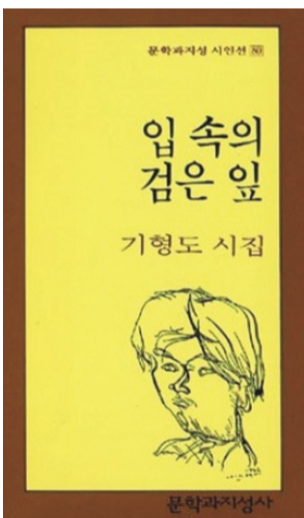
뒤안길

너의 입술도 좋고  
가슴도 좋고 다 좋다  
  
좋아서도 살고,  
억지로도 살고  
  
가뭇도 들지 않은  
샘물가에  
균침이 마르고  
양상한 가지만 남은  
추운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울제  
  
너의 입술도 가슴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시린가슴만 덩그러니 남아  
안타까움으로 넘칠거리는 그리움들만이  
불을 지피고 있다  
  
탱자나무 가지땀볼 속의  
눈이 녹아 내리던 날 밤  
뜨거운 포옹으로 너의 몸을 맞는다  
그렇게  
가지땀볼은 불타고 있었다

책 소개

기형도 시집 「입속의 검은 입」 문학과지성사

- 절대 고독, 죽음을 통해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시



길을 잃었다. 기형도, 기형도 때문이다. 이십 년 전쯤 나는 기형도에 빠져 2년 동안 미쳐 지냈다. 그림을 잃었고 푸르게 피어나는 그의 말들에 놀려 신음해야 했다. 기형도에 사로잡혀 그의 시편들을 외우고자 했으나 그의 말들은 용케도 내 머리를 비껴갔다. 아니, 내 심장의 저편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다 은연중 내 혀의 뿌리를 흔들었다. 나는 가끔씩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놀리곤 하였다.  
절대적 고독을 노래한 죽음의 시인 언저리에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현실을 보게 했다.

과연 그는 죽음의 시인이다. 허무의 시인이다.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은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 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 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넘쳤다  
택시운전사는 이따금 뒤를 돌아다본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 「입속의 검은 입」 중에서

그의 시는 언제나 죽음 언저리를 맴돌았다. 무엇이 그의 시어들을 그토록 죽음으로 몰아간 것인가, 박찬일 시인은 “기형도는 신이 부재하는 시대, 절대적 고독을 말한 죽음의 시인이었다.”라고 말한다.  
- 『현대 비평과 이론 봄·여름호』 2007 「기형도 시에 대한 몇 개의 진술」  
기형도 시인은 1960년 경기도 연평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84년 중앙일보 기자, 85년 동

진창윤

전북대 미대 졸업 / 서학동 예술마을 서양화가로 활동중

아일보 신춘문예 「안개」가 당선되어 문단 활동을 한다. 짧은 29세 (1989년 3월) 종로의 한 극장에서 죽었다.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의 기사를 했으니 누구나 부러워 할 만 한 엘리트였다. 그를 죽음의 시인으로 몰고 간 것은 육체의 고통, 백혈병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공포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1984년 중앙일보 입사 4개월 전 등골길에서 심장마비를 느낀다. “오늘아침 내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갑자기 살기를 느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이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중략)... 얼굴 가득히 땀이 흘렀다. 심장마비란 이런 것일까.”  
- 『기형도 산문집』 산림 신만수, 57쪽 편지11 1984.6.2 -구체적으로 심장마비라는 단어를 그의 산문집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시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문학도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는 말해 무엇하랴. 한발 한발 다가오는 죽음이 그를 벼랑으로 밀어붙였으나, 기형도는 그러한 정신공황을 뛰어 넘어, 지금 여기의 삶과 희망을 보게 하였다. “62쇄라는 경이적 기록을 달성”-(2007년 한국일보)-... 무슨 말이 필요할까.

사진속 이야기 1



하늘아래 구름.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구름과는 또다른 모습.  
똑같은 구름이여도 어느곳에서 어떤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보이는 모습..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의 생각과 성향으로 때론 같게 때론 너무나 다르게 판단해버리는 우리들의 양면은 아닐까..

박혜숙  
건축사 구민 건축사사무소(전북)

사진속 이야기 2



프라하의 블타바강  
블타바 강의 프라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잔잔히 흐르는 강물은 프라하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BGM으로 이 강을 주제로 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제 2곡 Vltava'를 추천한다.

신동욱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유일한  
**광주·전남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새롭게 출범한 동아세라믹(주)는 지난 1995년 봉황세라믹스(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점토벽돌 생산의 기술력과 여러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점토벽돌 제조회사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류 점토벽돌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미장벽돌

\* 점토벽돌 시공사례



**동아세라믹|주**  
 DONG-A CERAMIC CO.,LTD.

본 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  
 Tel. 061-331-9000-2 Fax. 061-331-9003  
 서울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801호  
 Tel. 031-737-7890 Fax. 031-777-8325